



용도로 본 통일신라 목간의 서풍

Calligraphic Style of the Wooden Tablets of the United Silla by Use

저자 (Authors)	정현숙 Jung, Hyun-sook
출처 (Source)	한국학논집 61 , 2015.12, 37-84(49 pages) Keimyung Korean Studies Journal 61 , 2015.12, 37-84(49 pages)
발행처 (Publisher)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Academia Korean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96687
APA Style	정현숙 (2015). 용도로 본 통일신라 목간의 서풍. 한국학논집, 61, 37-8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3:3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용도로 본 통일신라 목간의 서풍*

정 현 숙

목간은 고대의 문자 자료 가운데 직접 필사한 서적이므로 고대 행정관리들의 글씨를 살피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료다. 본고는 통일신라의 목간을 용도별로 나누어 그 서풍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고신라에서는 하찰목간荷札木簡[고리표목간]과 문서목간文書木簡이 주를 이루었다면, 통일신라에서는 문서목간은 줄어들고 하찰목간이 주를 이룬다. 또 통일기에는 거기에 습서목간習書木簡과 제의목간祭儀木簡이 더해져 그 용도가 다양해지고, 용도에 따라 서풍도 달라진다.

하찰목간의 글씨는 고박하면서 자유자재하고, 습서목간의 글씨는 편안하면서 자연스럽게 해학적이다. 문서목간의 글씨는 정연하면서 무밀하고, 제의목간의 글씨는 과감하면서 굳건하다. 그리고 같은 용도의 목간이라도 통일기의 글씨는 삼국기에 비해 훨씬 능숙하여 행정관리들의 서사솜씨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솜씨에 공졸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에 어울리는 글씨를 쓰는 미감은 동일하다.

핵심 단어 : 하찰목간, 습서목간, 문서목간, 제의목간, 주술목간

1. 머리말

고대의 문자 자료 가운데 금석문은 먼저 필사한 후 새기거나 주조한 가공과정을 거친 이차 자료이기 때문에 새긴 이의 각의가 글씨 쓴 이의 필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원래 글씨가 달리 표현될 수도 있는 변수가 있다. 이에 비해 목간은 종이가 귀하던 때 그것을 대신한 서사자료 역할을 하면서 나무 위에 직접 필사했기 때문에 서자의 원의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글씨의 특징을 살피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서적이다.

목간은 내용적 가치도 서예사적 의의 못지않게 크다. 금석문은 일차적으로 정리하여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그 문장에 어느 정도 손질을 가한 것이 분명하지만, 목간의 경우 내용은 비록 단편적이지만 대부분 금석문에는 기록되지 않은 세세한 부분을 즉석에서 쓴 손질되지 않은 사료라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 다만 목간의 형태적 특성상 너비가 좁은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금석 위에서 보이는 장법과 결구를 통해 전체적인 서풍을 살펴볼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대신 목의 농담, 획의 굵기의 변화, 필의의 연결성 등 서예의 진정한 묘미를 보여주는 장점도 있다.

본고의 목적은 통일신라시대의 목간을 통해 목간의 작성자인 당시 행정관리 글씨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하찰목간과 문서목간이 주를 이루는 삼국기에 비해 통일기에는 하찰, 습서, 문서, 제의 등 목간의 용도가 다양해졌고 그 결과 주로 명서인들이 쓴 금석문의 글씨에서는 알 수 없는 행정관리들의 글씨를 살펴볼 수 있어서 금석문과는 다른 신라 글씨의 이면을 보게 될 것이다.

2. 신라 목간의 출토 상황과 용도

나무 위에 쓴 문자 자료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죽간과 목간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죽간이 많이 출토된 중국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에서는 죽간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죽간이 출토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는 1942년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의 사리장치에서 발견된 불경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 죽간이 유일한 예이나 아쉽게도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종이가 보편화되기 전에 고대 동아시아에서 널리 사용된 기록유물 중 하나인 목간은 용도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고, 거기에 쓰인 내용으로 세부적 용도를 짐작할 수 있다.¹⁾ 또 내용에 따라 서사 장소와 서사자가 달라지므로 당연히 그 서풍도 다르게 변한다. 서풍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신라 목간의 현황을 살펴보자.

〈표 1〉 신라 목간의 현황

출토지	제작시기	목간수(목서목간)	주용도	발굴연도
함안 城山山城	6C 중반	281(224)	꼬리표	1991-2011
하남 二聖山城	6-7C 초	34(13)	꼬리표	1990-2000
경주 月城孩子	6C-679	105(31)	문서	1985-1986
경주 皇福寺址 석탑	통일신라(706)	죽간(佛經冊書)		1942
경주 雁鴨池	통일신라(8C)	107(69)	꼬리표	1975
경주 皇南洞	통일신라(7-9C)	3(3)	문서	1994
경주 박물관 남측부지	통일신라(8-9C)	2(1)	제의	2011-2012
경주 박물관부지	통일신라(8-10C)	5(3)	제의	1998, 2012
경주 傳仁容寺址	통일신라(8-10C)	1(1)	제의	2002-2010
익산 彌勒寺址	통일신라(7-8C)	2(2)	문서/습서?	1980
김해 鳳凰洞	통일신라(8C)	1(1)	습서(논어)	2000
인천 桂陽山城	통일신라(7-8C)	2(2)	습서(논어)	2003-2009
창녕 火旺山城	통일신라(9-10C)	7(4)	제의·주술	2002-2005

1) 목간의 형태별, 용도별 분류는 윤선대,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77, 88쪽.

현재까지 출토된 한국의 고대목간은 대부분 6세기 이후 백제와 신라에서 제작된 것이다.²⁾ 백제의 목간은 나주 복암리 출토 목간³⁾을 제외하면 대부분 왕성인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었다.⁴⁾ 왕경과 지방의 목간은 문서목간인 경우 어느 정도 수려하고 세련된 백제의 서풍으로 쓰여, 복암리목간의 경우 왕경의 행정관이 쓴 것이 아닌가 추론하기도 한다.

한편 신라의 목간은 위의 표⁵⁾처럼 삼국기와 통일기⁶⁾로 나눌 수 있다. 삼국기 목간 가운데 지방의 것으로는 함안 성산산성, 하남 이성산성 출토 목간이 있고,⁷⁾ 왕경의 것으로는 월성해자 출토 목간이 있다. 지방의 것은

-
- 2) 윤선태. 2004. 「한국고대목간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고대목간』.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주보돈. 2008.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木簡과 文字』 창간호. 한국목간학회; 전덕재. 2012. 「한국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木簡과 文字』 9. 한국목간학회.
- 3) 김성범. 2009. 「羅州 伏岩里 유적 출토 백제목간과 기타 문자 관련 유물」. 『木簡과 文字』 3. 한국목간학회; 김성범. 2010. 「羅州 伏岩里 木簡의 判讀과 釋讀」. 『木簡과 文字』 5. 한국목간학회; 김창서. 2011. 「나주 복암리 출토 목간 연구의 쟁점과 과제」. 『百濟文化』 4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윤선태. 2011. 「나주 복암리 출토 백제목간의 판독과 용도분석-7세기 초 백제의 지방지배와 관련하여」. 『百濟研究』 5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이용현. 2013. 「나주 복암리 목간 연구 현황과 전망」. 『木簡과 文字』 10. 한국목간학회.
- 4) 홍승우. 2013. 「扶餘 지역 출토 백제 목간의 연구와 현황」. 『木簡과 文字』 10. 한국목간학회.
- 5) 정현숙. 2015. 「신라 서예의 다양성과 일관성 고찰」. 『書藝學研究』 27. 한국서예학회. 37쪽 표16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6) 신라사의 시기 구분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언급되어 있다. 전자는 上代·中代·下代로, 후자는 上古·中古·下古로 구분하여 차이가 있으나, 무열왕의 즉위년인 654년을 전시대와는 다른 시대적 변혁기로 인식한 점은 같다. 654년이 『삼국사기』에서는 중대의, 『삼국유사』에서는 하고의 시작이다. 이영호. 2014.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7-33쪽; 주보돈. 2015. 「신라사의 흐름」.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국립경주박물관. 200-201쪽.
- 그러나 본고의 연구대상인 목간은 이 시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절대년을 가진 것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기준인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을 삼국기와 통일기의 경계로 한다.
- 7) 윤선태. 199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의 용도」.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이경섭. 2005. 「성산산성 출토 하찰목간의 제작지와 기능」. 『韓國古代史研究』 37. 한국고대사학회; 주보돈. 2009. 「咸安 城山山城 출토 木簡의 기초적 검토」. 『신라사와 금석문』. 지식산업사; 윤선태. 2012.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 荷札의 再檢討」. 『史林』 41. 수선사학회; 이경섭. 2013. 「함안 城山山城 출토 新羅木簡 연구의 흐름과 전망」. 『木簡과 文字』 10. 한국목간학회.

대부분 세금으로 보낸 피, 소금, 철 등의 물품에 붙이는 꼬리표목간이 주를 이루며, 따라서 대부분 행서의 필의가 있는 해서나 행서로 쓴 글씨가 투박하면서 힘차다.

반면 월성의 해자가 하한 679년경 폐쇄되었으므로 6-7세기의 것으로 보는 월성해자 출토 목간은 주로 문서목간이다. 문서의 내용은 의약 관련, 왕경 6부 관련, 문서행정 관련 등 다양하다.⁸⁾ 따라서 문서임을 의식한 듯 산성지역의 꼬리표목간에 비해 더 정연한 서풍으로 쓰였다.⁹⁾

통일신라시대의 목간 출토지는 왕성인 경주지역이 안압지, 황남동, 박물관부지, 박물관 남측부지, 전인용사지 다섯 곳이며, 지방은 김해 봉황동, 인천 계양산성, 창녕 화왕산성, 익산 미륵사지 네 곳이다. 이 가운데 가장 이른 해인 1975년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간이 목흔이 있는 왕경 출토 목간의 수에서는 단연 압도적이다. 특히 안압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목간이 출토된 유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출토 목간 중 몇 점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안압지 북서편에 위치한 임해전지臨海殿址의 통칭 제4건물지에서 제5건물지로 통하는 이중 호안護岸석축 밑 개흙층에서 수습되었다. 월성의 해자가 폐쇄되고 통일기에 들어서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된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간이 곧 통일신라의 목간문화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서목간이 주를 이룬 삼국기의 월성해자목간과의 비교를 통해 안압지목간을 바라보면 목간 용도의 변화추이가 보인다.¹⁰⁾

한국 고대목간의 제작 시기에 이미 종이 가 어느 정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종이 문서와 관련이 깊은 제첨축題籤軸[갈피목간]의 출토가 방증하고

8) 윤선태. 2005.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한국역사연구회. 123-138쪽.

9) 필자는 용도에 초점을 맞추어 6-7세기 신라목간의 서풍을 논한 바 있다. 정현숙. 2015. 앞의 논문. 37-45쪽. 출토지로 본 목간의 서체는 고광의. 2008. 「6~7세기 新羅 木簡의 書體와 書藝史的 的의」, 『木簡과 文字』 창간호. 한국목간학회. 참조.

10) 홍기승. 2013. 「경주 월성해자·안압지 출토 목간의 연구 동향」, 『木簡과 文字』 10. 한국목간학회.

있다. 문서행정이 활발해지고 문서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정리해야 했기 때문에 갈피목간을 만들어 내용을 알기 쉽게 간단히 기재하고 두루마리 문서 축에 끼워 내용별로 나누어 보관했을 것이다. 6세기 중엽의 함안 성산산성과 6-7세기의 부여 쌍북리유적에서 출토된 제침축이 이를 말해준다.¹¹⁾

제침축의 출토는 6세기에 이미 종이 문서가 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서행정 관련 목간이라 해도 어디까지나 종이 문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보조적이거나 문서의 형식을 취하다보니 월성해자목간은 안압지목간에 비해 별다른 가공 없이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긴 채 사용한 원주형목간이나 다면목간이 많다. 다면목간은 삼각부터 육각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며, 원주형목간 중에는 6행으로 쓴 것도 있다. 이에 비해 안압지목간은 전체 목서목간 69점 중 원주형이나 다면인 것은 네 점에 불과하여 문서로서의 용도가 급격히 줄어들음을 알 수 있으며, 대신 양면에 그 두께도 얇아져 꼬리표목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목간이 문서로서의 자리를 종이에게 내어주고, 종이가 대신할 수 없는 꼬리표 역할에 주력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안압지목간 가운데 습서목간도 있다. 종이가 발견되고 심지어 널리 쓰인 후에도 목간이 쓰인 이유는 재사용의 장점 때문이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습서목간이다.¹²⁾ 또 우수한 한지를 많이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기도 한 고려시대에도 궁중에서조차 절약을 미덕으로 간주하여 각종 국가적 제사의 제문은 목판에 썼다는 것도 참고된다.¹³⁾ 처음부터 습서용으로 사

11) 성산산성에서는 2006년 현재까지 총 11점의 갈피목간(인덱스목간)이 출토되었다. 박성현, 2008. 「신라 城址 출토 문자 자료의 현황과 분류」, 『木簡과 文字』 2. 한국목간학회, 104쪽. 갈피목간 이미지는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고대목간』 개정판, 72쪽. 참조. 일본에서도 7-9세기로 추정되는 宮城縣多賀城市山王遺跡에서 갈피목간이 출토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2011. 『문자, 그 이후』 한국고대문자전, 72쪽.

12) 권인한, 2013. 「고대한국 습서 목간의 사례와 의미」, 『木簡과 文字』 11. 한국목간학회.

13) 이기동, 1979. 「안압지 출토 신라 목간에 대하여」, 『경북사학』 1. 경북사학회, 121-131쪽; 이기동, 1997. 『新羅骨品制司誨와 花郎徒』, 일조각, 391-409쪽(재수록).

용되거나 본래의 일차적 목적이 끝나면 다시 깎는 등의 과정을 거쳐 목간이 습서용으로 재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말단 행정관리들은 업무를 보기 위해서 글자를 연습해야 하고 그 방법은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써 내려가는 것이다. 업무상 필요한 연호나 관직을 연습하기도 하고 문장의 기본인 고문을 쓰기도 했는데, 전자는 안압지 출토 목간에서, 후자는 김해 봉황동, 인천 계양산성 출토 목간에서 보인다.

김해 봉황대 구릉 복단에 해당하는 봉황동 408번지의 주택신축부지 시굴조사과정에서 사면목간 한 점이 출토되었다. 이 부지에서는 주거지 수혈竪穴[옹덩이 유구], 우물 저습지 등의 유구가 노출되었는데 주거지에서는 화덕과 온돌시설, 벽체 일부가 확인되었고 저습지에서는 목책렬木柵列이 인위적으로 깎 나뭇가지들과 함께 노출되었다. 출토유물은 실생활에 사용된 도질토기陶質土器와 연질토기軟質土器가 주를 이루고 있어 금관가야가 해체된 이후인 6-8세기대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토 목간은 상·하단이 파손되어 전모는 알 수 없지만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 편이 쓰인 것으로 보아 어떤 행정관리가 고전을 연습한 것으로 여겨진다.¹⁴⁾

인천 계양산성은 영토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 475년 이전에는 백제에, 551년경까지는 고구려에 속했다. 551-553년까지 잠시 백제에 속했다가 553년 이후는 완전히 신라 영토가 되었다. 『삼국사기』 잡지에 의하면 통일신라의 경덕왕이 이름을 고치는 757년까지 이 일대를 주부토군 主夫吐郡이라고 지칭(475-757) 했는데, 북측 호안석축 상부에서 출토된 ‘主夫吐’명 기와는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⁵⁾

계양산성 출토 목간의 국적에 대해서는 백제설과 통일신라설이 있다.

14)釜山大學校博物館. 2007. 『金海 鳳凰洞 低濕地遺蹟』.釜山大學校博物館 研究叢書 第33輯.

15)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앞의 책. 246쪽;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나무 속 암호, 목간』. 198쪽.

백제설은 발굴조사단의 견해로 목간이 나온 우물에서 함께 나온 토기의 연대, 일부 유물의 탄소연대측정 등을 바탕으로 4세기대의 한성시기 백제 목간으로 보았다.¹⁶⁾ 통일신라설은 서체나 공반 유물로 볼 때¹⁷⁾ 그리고 통일신라의 것인 김해 봉황동목간과의 비교가 근거가 된다. 즉 지금까지 국내에서 논어목간은 이 두 곳에서만 출토되었다. 봉황동목간은 사각의 막대형이고, 계양산성목간은 오각의 막대형으로 다면목간이며, 복원 크기 도 105-127×15-20cm로 유사하다.¹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둘 다 『논어』 「공야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자에는 국학을 세운 682년(신문왕 2)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구체적인 견해가 제기되었다.¹⁹⁾ 따라서 본고에서도 통일신라의 것으로 간주한다.

익산 미륵사지에서도 목간 두 점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주류를 이루는 토기류, 기와류와 함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彌勒寺’, ‘金馬渚官’, ‘妙奉院’, ‘延祐四年’, ‘萬曆十五年’ 등의 명문와는 미륵사가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조선시대에 폐사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燹瓦를 통해 개·보수된 사실을 보여준다.

이 절터 남측에 조성된 대규모의 동·서 연못 가운데 통일신라 초기에 만들어진 서쪽 연못 내부의 개흙층에서 수종이 소나무이고 막대모양인 사면목간 두 점이 수습되었다. 사면에 목흔이 있는 목간은 연못의 남동 모서리 부근의 지표 260cm 아래에서 통일신라시대 인골 두 구와 함께 출토되었고, 양면에 목흔이 있는 목간은 사면 목흔 목간 출토 지점에서 북쪽으로 25m 떨어진 지점(지표 하 230cm)에서 출토되었다.²⁰⁾ 날짜와 인명을 기

16) 鮮文大學校考古研究所. 2005. 『仁川桂陽山城東門址內 集水井出土 木簡保存處理結果報告』.

17) 橋本繁. 2006. 『古代朝鮮における ‘論語’ 受容再論』 韓國出土木簡の世界Ⅲ(早稲田大学 3집포지움 발표문).

18) 복원 모습은 윤선태. 2007. 앞의 책. 69쪽. 참조.

19) 권인한. 2015. 『출토 문자자료로 본 신라의 유교경전 문화』. 『口訣研究』 35. 구결학회.

20)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앞의 책. 238쪽.

룩한 면도 있고 같은 글자를 반복한 면도 있어 문서 또는 습서로 추정한다. 또 사각 또는 삼각 막대모양의 목서 석간石簡 세 점도 같이 출토되어 통일신라기 사찰에서의 문자생활을 보여준다.²¹⁾

한편 삼국기 월성해자목간이 보여준 문서로서의 용도와 같은 성격의 목간이 경주 황남동에서 출토되었다. 월성을 크게 끼고 도는 도로가 월성 서북쪽에 위치한 내물왕릉 서쪽을 지나는데, 도로 건너편 약 50m 정도 지점인 황남동 376번지에서 수혈이 다섯 자리 발견되었다. 그 가운데 1호 수혈에서 목간 세 점이 출토되었는데 두 점에만 목서가 있다. 원형에 가까운 이 유구는 수직으로 벽면을 만들었는데 바닥에는 토기와 기와조각이 깔려 있었다. 목간 이외에 도장, 돌로 만든 저울추, 짚신, 빗 등이 같이 출토되었다. 이 유구는 7-9세기대의 공방이나 창고 관련 관아시설로 여겨지고, 출토 목간도 창고에 곡식을 납입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목간으로 본다.²²⁾

이와는 달리 경주박물관부지와 전인용사지, 창녕 화왕산성 목간은 우물이나 연지에서 발견되었고 ‘龍王’이라는 용어가 쓰인 것으로 보아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한다. 또 경주박물관 남측부지에서도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목흔이 지워져 ‘龍’ 또는 ‘龍王’이라는 글자는 확인할 수 없으나 역시 제의용으로 추측한다.

예로부터 우물은 탄생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장소이며, 소멸과 파괴 또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물의 유연함의 원리에서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신화적 사고를 낳았다. 또 물이 지닌 정화 능력은 재앙이나 잡귀를 물리치는 벽사辟邪의 구실을 하였고 우물 주변 공간을 신성화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식수를 공급해주는 우물의 변화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이는 곧 하늘의 뜻이라

21) 석간을 통일신라에서 고려의 것으로 보기도 한다. 국립청주박물관, 2000.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통천문화사. 119쪽; 국립중앙박물관, 2011. 앞의 책. 71쪽.

22)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앞의 책. 198쪽.

여졌다. 또한 현실과 인과응보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도 우물이었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다양한 성격의 제사가 우물에서 행해졌다. 여러 제사 행위 중에서 용과 관련된 것으로는 음력 정월 대보름이나 새해 첫 진일辰日(지지地支가 진辰으로 된 날)을 용날이라고 하여 ‘용알뜨기’라는 풍습이 있었다. 전날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우물에 알을 넣었는데, 이날 첫 닭이 울면 가장 먼저 우물에서 물을 떠 밥을 지으면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우물의 효험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기가 가장 먼저 용알을 떠냈다는 표시로 지푸라기나 오곡밥 등을 우물에 던져 넣었다고 한다.²³⁾ 이런 풍습보다 더 특별한 제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우물에서 공반 유물과 함께 출토된 ‘용’ 또는 ‘용왕’이 기록된 목간들이다.

국립경주박물관 관내에서 발굴된 두 기의 통일신라 우물 속에서 다량의 토기와 나무두레박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동물 뼈가 출토되었다. 이 우물들은 경주 월성의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우물 1은 깊이가 10m 정도이며, 안쪽 지름이 70-120cm다. 우물 속에서는 토기류, 기와류, 목기류 등의 인공유물과 함께 다량의 동물 뼈가 발견되었다. 특히 ‘南宮之印’이 찍힌 외편은 이곳이 남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또 열 살쯤 된 어린아이의 뼈가 거의 완전하게 출토되었다. 이 아이의 신분과 우물에서 발견된 경위에 관해서 두 가지 추측이 있다. 첫째는 왕족이나 귀족의 아이로 실수로 우물에 빠져 죽은 뒤 건져내어 제사를 지낸 다음 다시 우물에 넣고 마지막에 상석을 넣어 폐기했다고 본다. 둘째는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희생된 인신공양물일 경우인데, 이때 이 아이의 신분은 서민층일 가능성이 높다.

우물 2는 윗부분이 깎여 나가 깊이 3m 정도만 남아 있으며, 안쪽 지름

23) 우물과 제사에 관해서는 김창억, 2004. 『우물에 대한 제의와 그 의미』, 『영남문화재 연구』 17. 영남문화재연구원; 권오영, 2008. 『성스러운 우물의 제사』,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 역사문화학회; 국립경주박물관, 2011. 『우물에 빠진 통일신라 동물들』, 120-121쪽. 참조.

은 90cm 정도다. 다종다양한 동물 뼈와 함께 다량의 토기와 기와류 등 다양한 유물 460여 점이 출토되어 우물 1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 우물에서 ‘龍王’이라는 글자가 적힌 목간이 출토되어 우물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한다.²⁴⁾

같은 성격의 목간이 경주 월성에서 남쪽으로 70-8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전인용사지 우물에서도 출토되었다. 김인문(624-694)의 원찰인 인용사지로 알려진 이 유적은 8세기 중후반을 상한으로 하는 절터 유적을 중심으로 이보다 이른 유구들이 아래층에 중첩되어 나타났다. 이르게는 6세기대의 토기와 기와를 공반하는 초석 건물지부터 7, 8세기 초의 우물을 공반하는 건물지와 담장, 우물 등이 층층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 유적은 8세기 중후반 절터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여러 시기를 거쳐 변천을 거듭해왔음을 말해준다. 이 가운데 절터의 동회랑지 남쪽에 위치하고, 그 편년이 8세기 초에서 9세기 말 또는 10세기 초로 파악되는 우물 10에서 목간 한 점이 출토되었다. 우물은 30-50cm 크기의 할석割石을 사용하여 깊이 367cm, 직경 150cm로 축조되었는데, 내부 변석을 보면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짜여 있다. 제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토기, 다종의 동물 뼈, 다양한 조류의 뼈, 복숭아씨, 원반형 토제품 등이 ‘龍王’이라는 글자가 적힌 목간과 같이 출토되어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²⁵⁾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목간이 창녕 화왕산성에서도 출토되었다. 화왕산성은 창녕 화왕산 정상에 위치한 둘레 2.7km, 면적 184,8000㎡의 산정식山頂式 석성石城이다. 산성의 정상부는 분지형태이며, 내부의 동남쪽에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 서에서 동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 계곡의 하부에 세 개의 연지蓮池가 있는데 처음 만들어진 연대는 정확하게 알

24) 국립경주박물관. 같은 책. 8, 123쪽.

25) 권택장. 2010. 『경주 傳仁容寺址 유적 발굴조사와 木簡 출토』. 『木簡과 文字』 6. 한국목간학회. 우물 10에 관해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傳仁容寺址 발굴조사 보고서 I』. 194-198쪽. 목간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傳仁容寺址 발굴조사 보고서 II』. 57, 195쪽. 참조.

수 없다. 그러나 삼국시대 연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5-6세기대의 토기가 출토되어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이 산성의 축조 연대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연지들 가운데 ‘용지龍池’라 불리는 통일신라시대의 것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용지 상층에서는 조선시대의 유물이, 하층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목제품과 공반 유물이 출토되었다. 목제품 가운데 목간으로 비정할 수 있는 것이 일곱 점이다. 그 중 목서가 있는 것이 네 점인데, 한 점은 세 목간이 세트처럼 묶여 있다. 목간 4의 ‘龍王’이라는 목서에 주목하여 그 용도를 기우제와 관련된 제의목간으로 추정한다.²⁶⁾ 더하여 제사의 기본 성격은 용왕제로 보며, 나말여초에 화왕산성의 연지가 이 지역에서는 용왕 신앙의 중심지였고, 여기에서 각종 제사와 의례가 거행되었다고 여긴다. 또한 이 목간을 통해 국가 권력은 물론 새롭게 등장하는 지방 세력들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면서 전통적인 주술呪術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주술과 용 신앙 그리고 불교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보이는 양상, 그리고 목간을 못이나 칼로 찌르는 행위의 밑바탕에 깔린 고대인의 다채로운 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다.²⁷⁾

가장 최근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된 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은 신라 정궁인 월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궁으로 추정되는 경주박물관부지 유적과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여기에서 통일신라시대 ‘官府’명이 새겨진 유물이 출토되어 유적의 성격과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조사구역에서 확인된 우물은 총 11기이고, 이 가운데 내부조사를 실시한 우물은 조사구역 최남단 가운데에 위치한 한 우물이다. 우물은 깊이 9.6m,

26) 박성천·김시환. 2009.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 『木簡과 文字』 4. 한국목간학회; 김재홍. 2009.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과 祭儀』, 『木簡과 文字』 4. 한국목간학회.

27) 김창석. 2010.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목간의 내용과 용도』, 『木簡과 文字』 5. 한국목간학회.

직경 80-110cm인데, 지금까지 왕경지구 발굴조사에서 바닥을 확인한 우물 가운데 경주박물관 미술관부지 유적의 우물에 이어 두 번째로 깊다. 출토유물의 편년이 8세기 중반 이후 또는 9세기 이후로 파악되는 이 우물에서 목간 두 점이 출토되었다. 상술한 세 곳의 우물 목간처럼 ‘龍王’이라는 목서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기왕의 연구를 참작하면 인화문완, 인화문병, 소뺨, 사슴뿔, 복숭아씨, 밤 등 목간과 공반된 유물은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목서 판독에 진전이 있게 되면 우물제사와의 연관성을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지금까지 통일신라 목간을 용도별로 하찰[꼬리표] 목간, 습서목간, 문서목간, 제의목간으로 나누어 그 출토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²⁹⁾ 이제 그들의 서풍을 들여다 볼 차례다.

3. 용도로 본 통일신라 목간의 서풍

목간의 글씨 연구에서 특정지역 목간의 서풍을 언급할 때, 목간은 이동이 용이한 자료라는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목간은 제작지와 폐기처가 다를 수 있다. 문서목간은 수신자에 의해 폐기되고, 꼬리표목간은 수신처의 창고를 거쳐 폐기된다. 함안 성산산성의 꼬리표목간이 여기에 해당된다.³⁰⁾ 또 제3의 장소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28) 최순조. 2013.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 출토 신명문자료-東宮衙銘 호 및 辛番(?)東宮洗宅銘 청동접시-」. 『木簡과 文字』 10. 한국목간학회.

29) 본고에서는 내용보다는 서풍을 살피기 위해서 용도를 세분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 문서목간과 하찰목간은 더 세분화되어 질 수 있다. 윤선태. 2007. 앞의 책. 88쪽. 참조.

30) 전덕재. 2008.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연구현황과 쟁점」. 『신라문화』 31. 동국대학교

목간의 내용과 서풍을 논하기 전에 출토지보다는 제작지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출토지와 제작지가 같은 경우도 있다.

또한 서풍을 살피기 전에 내용에 따라 목간의 종류를 파악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문서목간은 발송처의 관원이 사무실에서 작성하면서 문서의 형식을 갖추려고 공들여 썼을 것이고, 꼬리표목간은 물품이 있는 창고 등 현장에서 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급히 거칠게 썼을 것이고, 습서목간은 단순히 글씨 연습을 위한 용도이므로 부담없이 편안하게 썼을 것이다. 필자는 용도에 따라 서체나 서풍이 달라진다는 것을 <광개토왕비>(414), <평양성석각>(589) 등 5, 6세기 고구려 금석문과 창녕지역 신라 금석문에서 확인했으며,³¹⁾ 6, 7세기 고신라 목간과 통일신라 목간의 서풍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했다.³²⁾

이 장에서는 통일신라 목간 전체를 대상으로 목서의 내용을 일별하고 상술한 용도순으로 그 서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상하게 살펴보겠다.

1) 고박하면서 자유자재한 하찰목간 글씨

통일신라시대 하찰[꼬리표]목간의 대표적인 것은 안압지 출토 목간이다.(그림 1) 이 목간의 형태는 대부분 상단이 ' > < ' 모양이며, 일부는 하단도 같은 모양이다. 드물게 목간 상단 중앙에 구멍을 뚫은 것도 있다. 목간은 긴 것과 짧은 것, 넓은 것과 좁은 것 등 그 형태가 실로 다양하다. 가장 긴 것은 길이 37.5cm, 너비 4.5cm이고, 가장 짧은 것은 길이 4cm, 너비

신라문화연구소; 2009. 「함안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木簡과文字』 3. 한국목간학회.

31) 정현숙. 2010. 「삼국시대의 서풍」. 『옛 글씨의 아름다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22-223쪽; 2014. 「창녕지역 신라금석문의 서풍」. 『書藝學研究』 24. 한국서예학회. 37-49쪽.

32) 정현숙. 2015. 앞의 논문; 정현숙. 2013a. 「통일신라 서예의 다양성과 서풍의 특징」. 『書藝學研究』 22. 한국서예학회.

0.6cm다. 대체로 길이가 9-23cm인데, 중국의 거연한간居延漢簡이나 둔황간간敦煌漢簡, 일본의 평성궁지 목간보다 작은 편이다. 두께도 0.2-3cm로 다양한데, 대체로 0.5-1.5cm 사이로 얇은 편이다. 각 목간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이는 재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또 상태가 지극히 양호한 네 목간에는 목흔이 없어 아마도 재사용을 위해 나무 표면을 깎아둔 채 안압지에 던진 듯하다. 일본 평성궁지 출토 목간 이만 점 가운데 70%가 재사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참고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압지 출토 목간 가운데 행정관련 문서라 생각되는 것은 드물며, 대부분 8세기 동궁에서 사용한 식품을 담은 독이나 물건에 단 꼬리표목간이다. 목간에 기록된 식품의 종류는 고성해高城醢(목간 4), 가화어해加火魚醢(목간 35), 녹해鹿醢(목간 14), 견오장豕五藏(목간 13), 가화어조사加火魚助史(목간 7), 저(水)조사猪(水)助史(목간 2, 25, 26), 장조사獐助史(목간 36), 생포生鮑(목간 9), 급삼즙汲上汁(목간 15) 등이다.³³⁾ 해醢는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음식이고, 젓갈을 의미하는 조사助史는 젓의 차자 표기이고, 즙汁은 먹거나 마시는 액즙이고, 견豕은 돼지[豕], 개[犬] 또는 소[牛]를 뜻한다. 생포는 전복이며, 가화어는 가오리다. 그리고 고성해는 강원도 고성에서 만들어 상납한 식해를 말한다. 문서 내용은 '모년 모월 모일에 어떤 식해 또는 젓갈을 만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그 뒤에 식품을 담은 용기의 종류와 수량을 표기했다. 이런 다양한 꼬리표목간을 통해서 8세기 동궁의 식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동궁의 행정기관과 관계된 목간도 몇 점 출토되었다. 관부명으로는 경덕왕대의 '洗宅'이 있고,³⁴⁾ 목간 2 전면에 '北廂'이 있다. 세택은 국왕에 직속되거나 동궁에 소속된 행정관청인데, 주로 시종侍從과 문필文筆을 담당했으며, 북상은 동궁 관청의 하나인 북상전北廂典과 관련되었다고 보나 구체적인 성격은 알 수 없다.³⁵⁾ 관직명으로는 '韓舍'(大舍)가 있으

33) 이하 목간 번호는 『한국의 고대목간』(2006)을 따랐다.

34) 이기동. 1997. 앞의 책. 405-408쪽. 참조.

며, 인명으로는 ‘思林’이 있다.

이처럼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안압지목간이 꼬리표목간이라는 점이 지본명존시대에 목간이 지내는 한계성이다. 1933년 일본 나라 동대사 정창원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의 민정문서, 1976년 알려진 정창원 소장 제2장정문서 모두 종이에 목서되어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의 행정관련 문서는 주로 종이에 기록되었으며, 목간의 용도는 꼬리표와 같은 특수한 데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안압지 출토 목간이 임해전에 부속된 궁중 관아의 것은 확실하지만 그 내용은 이처럼 공문서가 아닌 꼬리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안압지목간은 목흔이 지워져 인식이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남아 있는 것만 보아도 서체는 대부분 행서다.³⁵⁾ 때로는 해서의 필의가 있는 해행서, 때로는 초서의 필의가 있는 초행서도 쓰였으며, 습서목간의 경우는 예서의 필의가 농후한 것도 있다. 전체적으로 전서를 제외한 네 서체의 필의가 골고루 섞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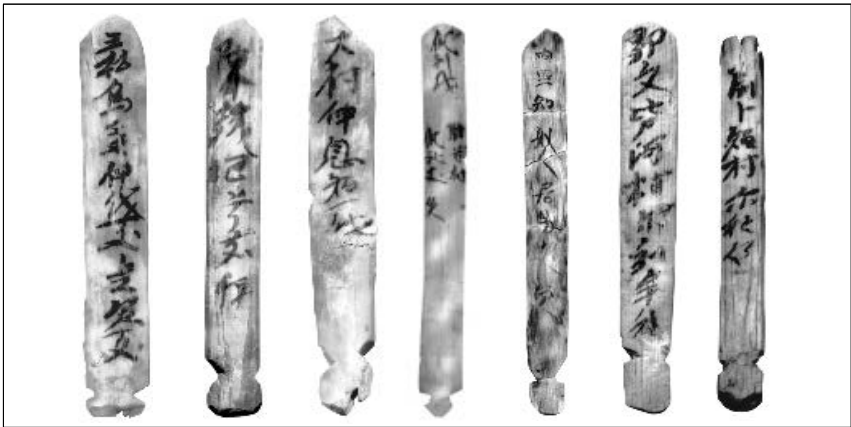
양면 꼬리표목간 185에서 전면은 좌측에 ‘立(?)迷急得條高城醞武(?)’, 후면은 중앙에 ‘辛□洗宅□□瓮一品仲上’을 행서로 썼다. 전면의 글씨는 하부가 더 넓은 목간의 형태를 따라 아래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마지막 글자는 가장 크고 넓적해 안정감이 있으며, 무엇보다 목간의 형태와 글자의 결구가 잘 어우러진다. 후면도 전면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대체로 유사한 구성을 띠고 있으며, 특히 하단의 횡획이 전면의 마지막 글자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 전면 ‘急’자의 심과 후면의 ‘洗’자의 마지막 구획은 정연함을 깨는 파격적 필법이다.

35) 전덕재. 2012. 앞의 논문. 25-26쪽.

36) 주로 예서체이나 간혹 초서체도 확인된다는 견해가 있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앞의 책. 145쪽. 아마도 예서풍이 짙은 습서목간 때문에 예서로 본 것 같다.



〈그림 1〉 경주 안압지목간 185, 213, 194, 통일신라, 8.8×1.45×0.45cm, 16.5×4.5×1.1cm, 15.2×2.7×0.8cm, 국립경주박물관



〈그림 2〉 함안 성산산성목간 6, 13, 14, 33, 35, 39, 40, 신라, 20×2.8×0.6cm, 15.9×2.2×0.7cm, 16×2.5×0.4~1.0cm, 29.3×3.5×0.7cm, 27.6×3.3×0.6cm, 17.2×2.4×0.5cm, 19.3×2.1×1.0cm,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양면 꼬리표목간 213은 전·후면 모두 ‘策事門思易門金’이라고 써 내용이 같은데 이는 한국 목간에서는 드문 것이다. 명문은 ‘책사문과 사역문의 빗장[金]’으로 해석되어 책사문과 사역문의 문을 여는 열쇠에 붙었던 목

간임을 알려준다. 중국 문자학자들은 신라에도 중국에서 황제와 신료들이 얼마나 박식한지를 겨룬 게임의 일종인 ‘책사’라는 제도가 있었으며, 이는 신라에서 학문시험용으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이 목간들이 제작된 신라에는 책사라는 전문화된 부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³⁷⁾ 이들은 여기서 사용된 ‘책사’라는 말은 중국 남북조시대 ‘예사隸事’라는 말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그 의미는 문인들이 모여 담론할 때 전적이나 역사적 전장典章 및 고사를 정해진 유형에 따라 엮어 내어 그 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유희의 일종이라고 한다. 또 중국에서 황제와 신료 및 문인 사이에서 박학博學을 겨루던 ‘예사’와는 달리, 신라에서의 ‘책사’는 귀족 자제들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고 시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면의 명문은 같지만 서체는 다르다. 전면은 해서, 후면은 행초서로 써서자가 여러 서체에 능숙하다는 것을 암시하며, 전·후면의 같은 글자를 달리 구사한 노련함이 돋보인다. 예컨대 ‘策’은 해서로 써 통일감을, ‘事’는 해서와 초서의 결구를 각각 표현하여 변화미를, ‘門’은 초서로 써 일체감을 주어 무밀한 해서와 자유자재한 초서 사이를 임의로 오간다.

안압지에서는 양면 못지않게 단면 목간도 많이 출토되었다. 판독이 맞다면 ‘갑진년(764, 경덕왕 23)³⁸⁾ 3월 3일 견오장을 불리다’로 해석될 수 있는 단면 꼬리표목간 194는 ‘甲辰三月三日治 彡五藏’을 행서의 필의가 있는 해서로 썼는데, 상술한 두 목간 글씨에서 나타나는 절제미를 깨는 거친 필법을 구사했다. 약간 좌측에서 시작했는데 점차 중심을 맞추어 끝에는 거의 중앙에 가깝다. 획획을 특히 길게 써 자형은 납작하고 자간은 밀하고 획은 굵어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질박하다. 해서이지만 행초의 필치가 느껴진다.

37) 뒤정(呂靜)·이하안·장리(張樂). 2011. 『한국 경주 안압지 출토 ‘책사(策事)’ 목간에 관한 시론』.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47-172쪽.

38) 이기동. 1997. 앞의 책. 403쪽.

이처럼 안압지목간의 꼬리표목간은 행초의 맛이 나는 해서, 속도감이 있는 행서, 유창한 초서로 쓰여 서체는 각기 다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고박하면서 자유자재하다. 그러나 대부분 꼬리표목간인 6세기 중반 고신라의 성산산성목간 글씨의 투박한 거침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³⁹⁾ (그림 2) 약 200년의 시차가 있는 두 곳의 꼬리표목간 행서를 비교해 보면 8세기 안압지목간의 글씨가 더 농익은 맛이 있다. 이는 통일기 행정관리들이 복잡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사교육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들의 서사솜씨가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비록 같은 시기라 하더라도 왕성에 위치한 동궁 행정관리의 글씨가 지방 행정관의 글씨보다 수준이 더 높았을 것이다.

2) 편안하면서 해학적인 습서목간 글씨

습서목간이 출토된 곳으로는 안압지, 김해 봉황동, 인천 계양산성이 있다. 안압지에서는 꼬리표 이외에 습서한 목간도 출토되었다. (그림 3) 목간 184에서는 연호인 ‘天寶’, 관직인 ‘韓舍’ 등의 글자를 무질서하게 반복하고, 부수인 辶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재미삼아 코와 눈썹을 먼저 그려보고 그 아래에는 눈과 입술까지 더한 인면을 그린 해학적인 모습도 보인다. 상술한 꼬리표목간이 행해서나 행서로 쓰인 것처럼 이 습서목간도 행해서로 쓰였는데, 행서의 필의가 속도감을 더해준다. 그러나 일부 상부와 하부 파책에 예서의 필법이 쓰였는데, 그 파책의 굵기 변화가 심해 울동미가 있다. 획간이 밀하고 획의 굵기에 변화가 많은 편이다. 용도와는 무관하게 대부분의 목간이 해서, 행서, 또는 초서로 쓰인 것과는 달리 이 습서목간에는 예서의 필법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목간은 예서로 쓰인 것이 많으나 한국에서는 거의 없어 이 습서목간은 특이한 자료다.

39) 정현수. 2015. 앞의 논문. 39-40쪽.

백제의 부여 궁남지 출토 사면목간에도 ‘文’, ‘道’, ‘也’ 등의 글자를 반복적으로 쓰고⁴⁰⁾ 나주 북암리목간에서도 동일자를 계속 연습한 것으로 보아,⁴¹⁾ 삼국시대부터 목간이 습서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안압지목간은 그것이 통일신라시대까지 계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습서용은 본래의 용도가 끝난 후 그 부분을 깎아서 재활용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서사재료로서 목간이 지닌 장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림 3〉 경주 안압지목간 184,
통일신라, 23.5×3.0×0.5cm,
국립경주박물관

40)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앞의 책. 70-71쪽.

41) 국립중앙박물관. 2011. 앞의 책. 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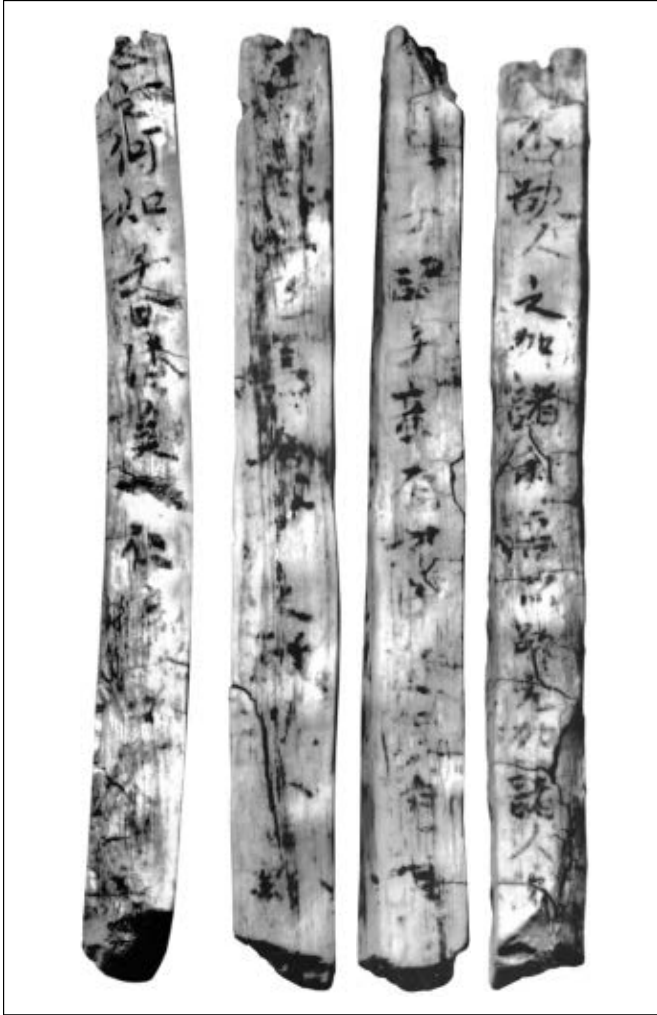
더불어 단순한 글자 연습이 아닌 문장 연습을 위해 고전을 쓴 습서목간도 있다.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논어목간이 출토되었는데, 형태는 사각 막대 모양의 잘린 모습이며, 사면에 53-57자가 쓰여 있다.⁴²⁾(그림 4) 목간의 내용은 『논어』 제5편 「공야장」의 후반부 일부 구절이다.⁴³⁾

이후 인천 계양산성에서도 논어목간이 출토되었다. 산성 내 집수정의 내부조사에서 목서명이 있는 목간 두 점을 비롯하여 토기편과 기와편, 가공된 목재, 수골, 패각류, 거북 등껍질[龜甲], 과일씨앗 등이 제7층위에서 출토되었다. 오면목간 1의 다섯 면에 『논어』 「공야장」 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상·하단이 훼손되어 전모를 알 수는 없다.(그림 5) 목간 2에는 다섯 자의 목흔이 있으나 ‘子’ 한 자만 식별된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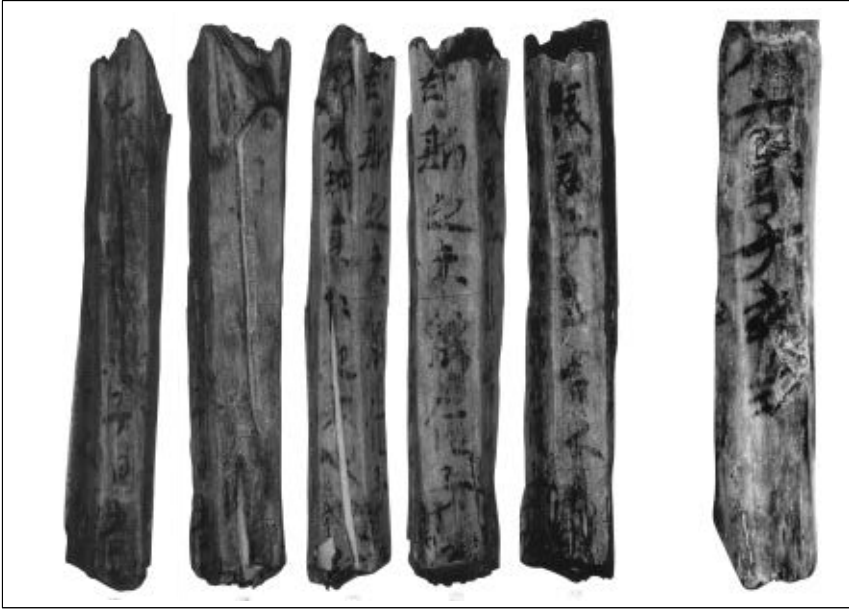
42) 낙랑시기의 평양 정백동 364호분과 중국 한묘에서는 논어죽간이 출토되었다. 정백동 364호분 죽간에는 『논어』 先進·安淵篇 부분이 죽간 120매 내외에 적혀 있다. 이 중 39매는 형태와 글씨가 비교적 온전하나 나머지 70여 매는 잔간 상태다. 李成市·尹龍九·金慶浩. 2009. 「平壤 貞柏洞354號粉出土 竹簡 『論語』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4. 한국목간학회. 참조. 중국 논어죽간은 河北省文物研究所定洲竹簡整理小組. 1997. 『定洲漢墓竹簡論語』. 文物出版社; 河北省文物研究所定洲竹簡整理小組. 1997. 『定洲西漢中山懷王墓竹簡<論語>釋文選』, 『文物』 第5期; 1997. 「定洲西漢中山懷王墓竹簡<論語>選校注」, 『文物』 第5期; 1997. 「定洲西漢中山懷王墓竹簡<論語>介紹」, 『文物』 第5期. 참조.

43)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앞의 책. 106쪽. 논어목간과 관련된 원문과 번역은 釜山大學校博物館. 2007. 앞의 책. 53쪽. 참조.

44) 鮮文大學校考古研究所. 2005. 앞의 책.



〈그림 4〉 김해 봉황동목간, 통일신라, 20.9×1.9cm,
부산대학교박물관



〈그림 5〉 인천 계양산성성목간 1, 2, 통일신라, 14×1.5cm, 49.3×2.5cm

이 두 논어목간은 다면목간이라는 점에서 초학자들의 학습서인 『급취장급就篇』이 기록된 중국 한나라의 고觚목간들과 형태나 기능이 유사하다. 이는 한국 고대의 초기 목간문화가 한나라 목간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⁴⁵⁾ 일본에서도 7-9세기경 『문선文選』을 연습한 목간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고전을 연습한 동아시아 삼국의 습서목간의 공통점을 알 수 있다.⁴⁶⁾ 『문선』은 중국 양나라 때 역대 대표적인 문장을 모아 엮은 책으로, 당나라 때 유행했으며, 신라에서는 독서삼품과의 시험과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 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신라와 일본에서도 널리 읽혀진 학습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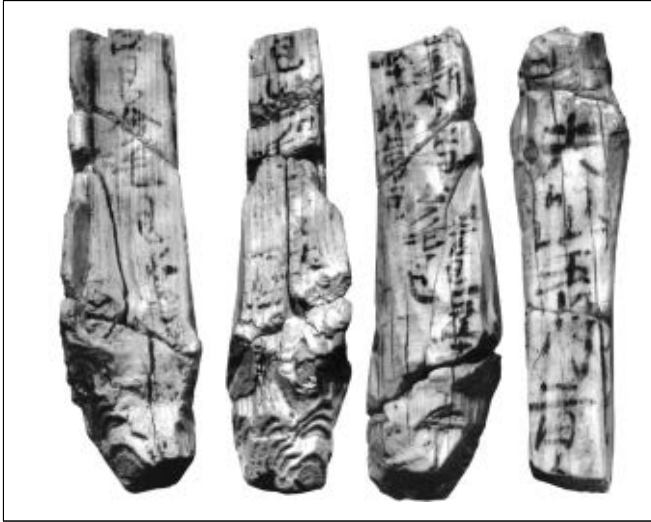
45) 윤선태. 2007. 앞의 책. 64-65쪽.

46) 국립중앙박물관. 2011. 앞의 책. 75쪽.

서체는 두 곳의 목간 모두 행서로 쓰였는데, 아마도 연습인지라 빨리 쓸 수 있는 행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의 문서목간이나 꼬리표목간에서 쓰인 행서와는 달리 필의의 연결이 유연하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편안하면서 힘차다. 해서의 필의가 많은 봉황동목간은 차분하면서 절제미가 있고, 해서의 필의가 적은 계양산성목간은 함안 성산산성 꼬리표목간의 행서처럼 거친 듯 힘찬 기운이 있다. 두 논어목간에서 ‘之’의 필법은 상이하나, ‘子’의 필법에는 유사한 면이 조금 있다. 특히 계양산성의 두 목간은 거침이 없는 ‘子’ 한 자만으로도 서자가 같음을 알 수 있다. 봉황동목간에는 단아한 <단양적성비>(550년경)의 느낌이 있고, 계양산성목간에는 과격적인 <포항냉수리비>(503)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습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두 곳의 목간은 당시 행정관리들의 구애됨이 없는 서풍을 보여준다.

익산 미륵사지 출토 목간 두 점은 모두 막대기 형태의 사각형이며 상·하단이 파손되었다. 사면목간 318은 삼면의 목서 방향은 동일하나 1면은 반대방향으로 쓴 것이 특이하며, 목간 139는 네 면 중 1면의 ‘不’자만 식별된다.⁴⁷⁾ 목간 318의 1면은 면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선명하게 글씨를 썼으나, 하부로 갈수록 서사면이 좁아져 행의 중심이 좌측으로 기울어졌다. 2, 3, 4면은 1면의 상부에 해당되는 하부의 나무 상태로 인해 글씨를 쓸 공간이 없고, 그나마 상부에도 금이 가거나 흠이 파인 부분이 많아 글자를 쓰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지 못한다.(그림 6)

47)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앞의 책. 238-239쪽.



〈그림 6〉 익산 미륵사지목간 318, 통일신라, 17.5×2.5~5.0cm, 미륵사지유물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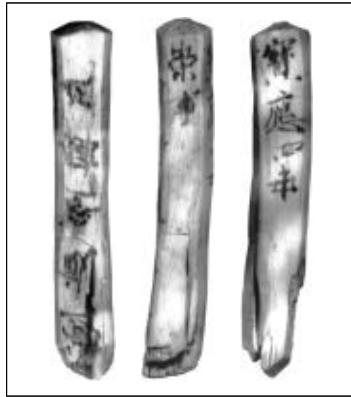
목간 318의 명문은 대략 1면 ‘光(?)山五月二日’, 2면 ‘新台巴□□巴□□ 矣毛巴 □□□巴’, 3면 ‘巴□毛巴’, 4면 ‘□巴今毛巴□’로 읽힌다. 다만 목간은 주로 문서목간의 형태이고 1면은 시기를 보여주므로 문서목간일 가능성이 있지만, 3행으로 쓴 2면부터 ‘巴’, ‘毛’자가 자주 반복되어 습서목간이라 추정하기도 한다. 동일자 반복의 예를 들면 ‘巴’자가 2면에 네 번, 3, 4면에 각각 두 번 반복되고 ‘毛’자도 2, 3, 4면에 각각 한 번씩 등장한다. 그러나 안압지목간의 ‘韓舍’처럼 같은 글자가 계속 반복되지 않고, 두 눈어목간처럼 문장을 연습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습서목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본고는 글씨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고 서풍이 문서목간의 그것과는 달라 습서목간에서 글씨를 논한다. 향후 목간이 더 출토된다면 용도는 어디에든 속할 수 있다.

글씨는 행서로 쓰였는데 1면의 첫 자에는 예서의 필법이 많다. 필법에 구애됨 없는 자유자재한 서풍이 정연한 문서목간의 서풍과는 거리가 있으

며, 편안하게 쓴 습서목간의 서풍에 더 가깝다. 습서라 해도 그 습씨는 통일신라 전체 목간 가운데 졸박한 편이다.

3) 정연하면서 무밀한 문서목간 글씨

통일기에는 장문의 문서목간이 드물다. 1975년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간은 상술하였듯이 대부분 꼬리표목간인데, 그 가운데 문서목간이 소수 있다. 천보4년(765)의 일을 기록한 사면목간 182에서 1면에는 ‘寶應四年’, 2면에는 ‘策事’, 3면에는 ‘壹貳參肆伍’가 거꾸로 쓰여 있고, 4면에는 목흔이 없다.(그림 7) 사면목간이라는 점, 그리고 막대 모양의 형태나 내용으로 보아 안압지 출토 목간 가운데 드물게 문서목간에 속한다.



〈그림 7〉 경주 안압지목간 182, 통일신라, 15.9×2.5×2.5cm,
국립경주박물관

목서는 행서의 필의가 있는 해서로 쓰였다. 각 글자의 중심이 목간의 중앙에 위치하지만 나무가 휘어지는 것을 따라 글자의 위치도 변하여 중심선은 약간 휘어져 있다. 자간이 거의 일정하고 글자의 크기가 비슷하며,

획간이 밀하다. 자형은 장방형이고 획획이 우상향인 것은 당나라 해서의 특징과 같고, 획의 굵기에 변화가 많아 더욱 생생한 맛이 있다. 전체적으로 정연하면서 무밀하여 문서목간의 보편적인 서풍에 속한다. 이 목간은 문서를 능숙하게 작성하는 행정관리의 서사솜씨를 잘 보여준다.

1994년 경주 황남동 376번지 일대에서 목간 세 점이 출토되었는데, 거기에 창고와 관련된 문서목간이 있다.⁴⁸⁾ 그 중 하나는 목간으로의 여부 판단이 불명확하고, 나머지 둘 중 하나는 양면, 다른 하나는 단면 목간인데 두 목간은 출토지 뿐만 아니라 서체 및 소나무인 수종樹種이 동일하며 가공흔적과 규격이 거의 유사하고 내용도 연관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각각 양면목간과 단면목간인 별개의 두 목간으로 보아 번호를 각각 281, 282로 정했으나⁴⁹⁾ 너비와 두께가 같은 동일 개체였던 것으로 추정하여 이후 아래 그림처럼 상단과 하단으로 연결하여 281로 명했다.(그림 8)

전면은 ‘五月廿六日棧食□□□下棧有石又米’, 후면은 ‘仲棧有食廿三石’으로 읽히며, 각각 ‘5월 26일 창고의 곡식을 …… 했다. 하경⁵⁰⁾에는 곡식 한 석과 쌀이 있다’, ‘중경에는 곡식 23석이 있다’로 해석된다. 삼국기에 이어 통일기에도 곡식의 양사로 ‘石[섬]’을 사용했다.⁵¹⁾

이 목간의 ‘食’은 무엇일까. 같이 납입한 품목 중에 ‘米’가 있기 때문에 쌀은 아니다. 그렇다면 전미田米[밭쌀]라 불리는 조[粟]일 가능성이 크다. 삼국시대에는 쌀이 오늘날처럼 주식이 아닌 화폐 대용이고 세금 납입

48) 김창석. 2001. 『황남동376유적 출토 목간의 내용과 용도』. 『新羅文化』 1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49)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앞의 책. 2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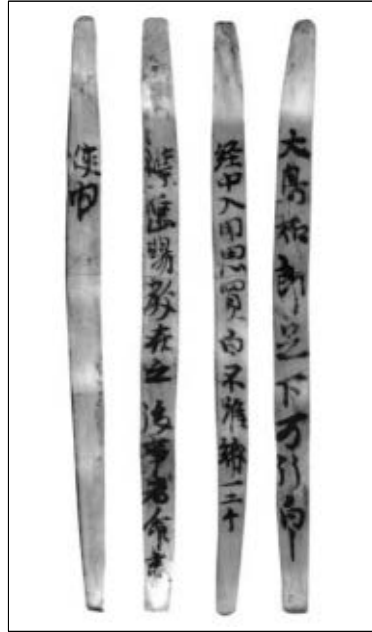
50) ‘棧’이 ‘경’으로 읽히는 연유는 다음과 같다. 창고를 상형한 글자인 ‘京’은 ‘창고’라는 뜻이 있다. 『三國志』 『高句麗傳』에 ‘커다란 창고는 없고 집집마다 작은 창고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桴京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에서 이를 형상하여 木 변을 붙여 ‘棧’을 조자하거나, 백제 또는 신라에서 조자한 것으로 본다. 고구려 출토 문자 자료에는 ‘棧’자가 없으나 백제와 신라 출토 자료에는 있기 때문이다.

51) 신라의 성산산성, 이성산성 꼬리표목간에서부터 양사로 ‘石’을 사용하고 있는데, ‘石’은 ‘섬’이다. 후대에 보이는 곡물 담은 가마니를 ‘섬’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2011. 앞의 책. 150쪽.

품목이었으며, 일상적으로 먹는 곡식이 따로 있었으니 그 중 하나가 조였다.⁵²⁾ 성산산성목간에는 보리[麥]와 피[稗]가 주로 보인다.



〈그림 8〉 경주 황남동목간 281, 통일신라, 22×2.0×0.6cm,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그림 9〉 경주 월성해자목간 149, 신라, 19×1.2×1.2cm,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이 유적지 조사에서 확인된 수혈유구를 비롯한 제반시설은 7-8세기에 해당되는 신라시대의 관영 혹은 궁에서 관리하는 창고의 부속 건물로 판단되고 있다.⁵³⁾ 목간의 내용을 통해서 통일신라시대에는 관부官府나 관영수공업장이 일정한 창고체계를 갖추었으며 문서와 기록에 입각해서 정

52)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앞의 책. 188쪽.

53) 당시의 왕이나 최고 지배계층의 능묘 주변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능묘와 관련된 부속 유구로 추정하기도 한다.

기적으로 부속창고의 재고량을 조사하거나 물품을 수납하고 그 결과를 목간에 날짜별로 기록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군현제에 입각한 지방 통치체제와 중앙의 창부倉部, 조부調府조직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교통로와 물품의 유통체계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벼루에는 창고를 관장하는 관청을 뜻하는 ‘椽司’가 목서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당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소중히 여겼음을 말해 준다.⁵⁴⁾

목간의 서체는 웅건한 북위풍 해서이며,⁵⁵⁾ 첫 자인 ‘五’와 ‘下’ 등에는 행서의 필의가 있다. 자형은 정방형이고 획간은 밀하며 전절에는 각이 없고 획의 굵기에는 변화가 많아 부드러운 듯 보이지만 골기가 있는 힘찬 글씨는 북위 해서의 특징과 상통한다. 비록 종이는 아니지만 문서임을 의식한 듯 나무 위의 글씨임에도 정연하여 서자의 서사솜씨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삼국기인 6-7세기에 쓴, 같은 경주지역의 월성 해자 출토 문서목간 149(그림 9)와 비교해 볼 때, 너비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해서의 능숙함에 차이가 나 통일기에 이르러 행정관리의 서사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해서의 서풍이다. 통일기 전후 당에서 입수된 구양순풍 해서로 쓴 가장 이른 석비로 <무열왕릉비>(661)가 있는데,⁵⁶⁾ 7-9세기 목간의 해서에서는 고품인 북위의 웅건무밀한 서풍이 쓰였다는 점이다. 아마도 초당풍 해서가 아직 행정관리들에게는 제대로 학습되지 않아 이전에 익혔던 서풍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4)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06. 앞의 책. 198-199쪽.

55) 북위 해서의 특징에 관해서는 정현숙. 2007. 「北魏 平城시기의 금석문과 그 연원」, 『書藝學研究』 10. 한국서예학회; 2013b. 「康有爲 『廣藝舟雙楫』의 「傳衛」·「寶南」·「備魏」篇 譯註」, 『木簡과 文字』 11. 한국목간학회. 279-285쪽; 강유위. 2014. 『광예주 쌍집』 상. 정세근·정현숙 옮김. 다운샘. 247-255쪽.

56) 정현숙. 2008. 「新羅와 北魏·隋·唐의 書藝 比較 研究」, 『書藝學研究』 13. 한국서예학회. 209-210쪽.

4) 과감하면서 굳건한 제의목간 글씨

삼국기 신라의 목간이 꼬리표나 문서의 용도로 주로 쓰였다면, 통일기 신라의 목간에는 제의라는 중요한 용도가 더해진다. 경주박물관부지와 전인용사지 우물, 창녕 화왕산성 연지에서 출토된 목간에는 모두 ‘龍’ 또는 ‘龍王’이 쓰여 있어 실용적 용도보다는 기우제와 같은 제사용으로 만들어진 제의목간으로 상정한다. 안압지에서는 ‘辛審龍王’명 토기가 출토되어 우물 출토 ‘龍王’명 목간과의 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왕경 중심에 위치한 경주박물관부지와 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우물 출토 목간부터 살펴보자. 경주박물관 부지 내의 두 우물 중에서 우물 2 출토 목간 네 점 가운데 두 점에서 목흔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나 글자 대부분이 지워져 판독이 어려운 상태다.(그림 10) 이 중 우물제사와 관련된 것은 양면목간 279다. 이 목간의 전면은 ‘万本來身中有史□□今白龍王時爲□內’로, 후면은 ‘時策施故賜哉[]’로 읽히며, ‘만본래신에게 관리[史]인 □□가 지금 아뢰기를 “용왕이 이때 하신 시책을 베푸는 까닭에, 밝게…”’로 풀이된다. 『삼국사기』에는 동궁관東宮官 용왕전龍王典에 대사大舍 두 명, 사史 두 명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우물에 용왕이 살고 있다고 믿고 용왕에게 올리는 제사를 지낸 것으로 추정된다.⁵⁷⁾

글씨는 해서로 썼으며, ‘中’, ‘日’자 등에는 행서의 필의가 있다. 획간이 밀하고 획이 굵어 전체적으로 웅건무밀한 북위풍 해서의 풍치가 있다. 자형은 주로 정방형이고 글자의 크기도 대부분 일정하여 황남동목간과 유사한 분위기가 있으나 더 속도감을 낸 달필이다. 목간 280의 ‘卅’자는 황남동목간의 ‘卅’자와 한 손에서 나온 것처럼 필법이 유사하다.

근자에 발굴된 경주박물관 남측부지에서는 세 점의 명문 유물이 나왔다. 조사구역에서 확인된 총 50여 동의 건물지 가운데 35호 건물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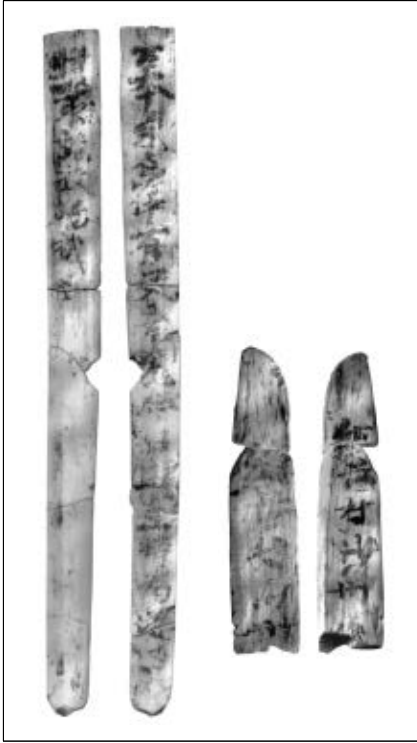
57) 국립경주박물관. 2011. 앞의 책. 100-101쪽.

‘辛審(?)東宮洗宅’명 청동접시가 출토되었다.(그림 11) 둘째 글자는 현 명문상으로는 米와 그 아래 지워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부에 ㄱ가 생략되고 하부에 田이 지워진 것으로 보고, 안압지 출토 ‘辛審龍王’명 토기처럼 기 출토된 자료에서 ‘신심辛審’의 예가 많아 ‘審’으로 추정한다. 산신인 ‘상심祥審’을 ‘신심’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청동제 접시는 동궁관아 직속 관부인 세택의 산천신의 제사 의식에 쓰인 그릇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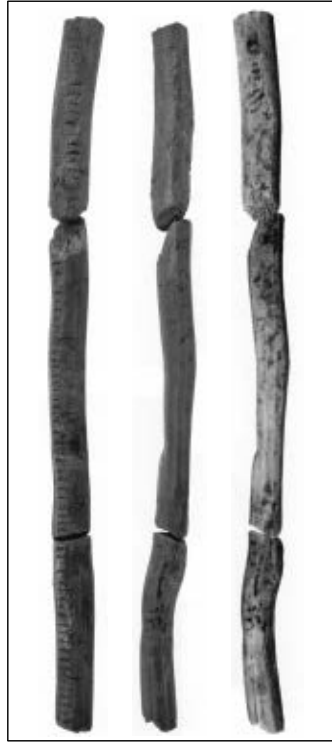
세택은 원래 어룡성御龍省 소속의 근시近侍조직의 하나로서 국왕이나 동궁의 시종, 문필, 비서업무를 담당한 국왕과 동궁의 직속기구로서 각각 별도로 존재했는데, 동궁 세택은 752년(경덕왕 11) 동궁 관아가 제정될 때 같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본다.⁵⁸⁾ 따라서 청동제 접시의 제작 연대는 752년 이후부터 세택이 759년 중사성中事省으로 개칭되기 전 사이 또는 776년(혜공왕 12) 다시 세택으로 바뀐 이후 9세기 중엽 다시 중사성으로 개칭되기 전의 어느 시기로 볼 수 있다. 즉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구역에서 확인된 총 11기의 우물 가운데 내부조사를 실시한 것은 최남단 가운데에 위치한 우물 한 기다. 여기에서 ‘東宮衙’명호와 목간 2점이 발견되었다. 호의 명문은 음각의 글자를 토기의 표면에 압날한 것으로 글자가 잘 찍히지 않은 부분은 예새로 다시 다듬었다.(그림 12) 명문 ‘동궁아’는 752년 설치된 동궁 소속 관아로 판단되는데, 현재까지 신라의 동궁으로 추정되는 안압지의 발굴조사에서 많은 목간과 명문와가 출토되었지만 ‘동궁아’라는 관아명이 새겨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따라서 경주박물관 남측부지는 동궁의 관아가 있었던 곳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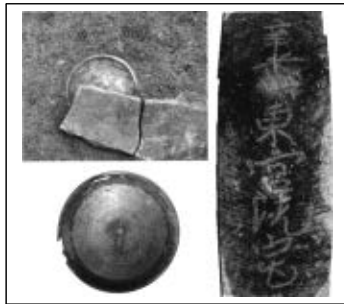
58) 『三國史記』卷39 雜誌 第8 職官中. “東宮衙, 景德王十一年置, 上大舍一人, 次大舍一人.”



〈그림 10〉 경주박물관부지목간 279, 280,
통일신라, 24.1×1.8×0.3cm,
9.8×2.1×0.9cm, 국립경주박물관



〈그림 13〉 경주박물관 남측부지목간 1,
통일신라, 24.1×1.8×0.3cm,
국립경주박물관



〈그림 11〉 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청동접시와 명문,
통일신라, 1×13cm, 국립경주박물관



〈그림 12〉 경주박물관 남측부지 '東宮衙'銘壺,
통일신라, 국립경주박물관

같이 출토된 목간 두 점은 용도가 다르다. 목간 1은 삼등분된 채 발견되었다.(그림 13) 길이가 24cm로 긴 편이며, 단면은 원형에 가깝다. 잔가지를 사용한 목간의 치목治木상태를 보면 나뭇가지의 껍질을 길이방향으로 한 번에 그어가며 다듬었다. 이런 흔적은 봉형목간에서 주로 관찰되는데, 이는 생나무의 가공을 의미한다. 목서는 한 면에서만 확인되며 반대 면에는 눈금이 그어져 있다. 명문은 목흔이 번져 아홉 자 가운데 세 자 정도만 관독하여 '日房个□ □□□ □□'로 읽었다.⁵⁹⁾ 그러나 둘째 글자를 '房'으로 보기에는 상·하부의 간격이 너무 커 '戶+□' 두 글자인 듯한데, '□'는 '方'보다는 '分'에 더 가까워 보인다.

목서면의 반대쪽에는 가로로 눈금이 그어져 있는데 열 번째 눈금은 길게 그어져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자는 단면이 대부분 장방형이고 모양이 반듯하다. 이것의 용도가 자라면 열 번째마다 그어진 긴 눈금 사이의 길이가 동일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형태도 반듯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길이를 재는 자의 용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⁶⁰⁾ 처음에는 산수算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목간으로 사용하고 우물에 던진 것이 아닌가 생

59) 최순조. 2013. 앞의 논문. 201쪽.

60) 같은 논문. 같은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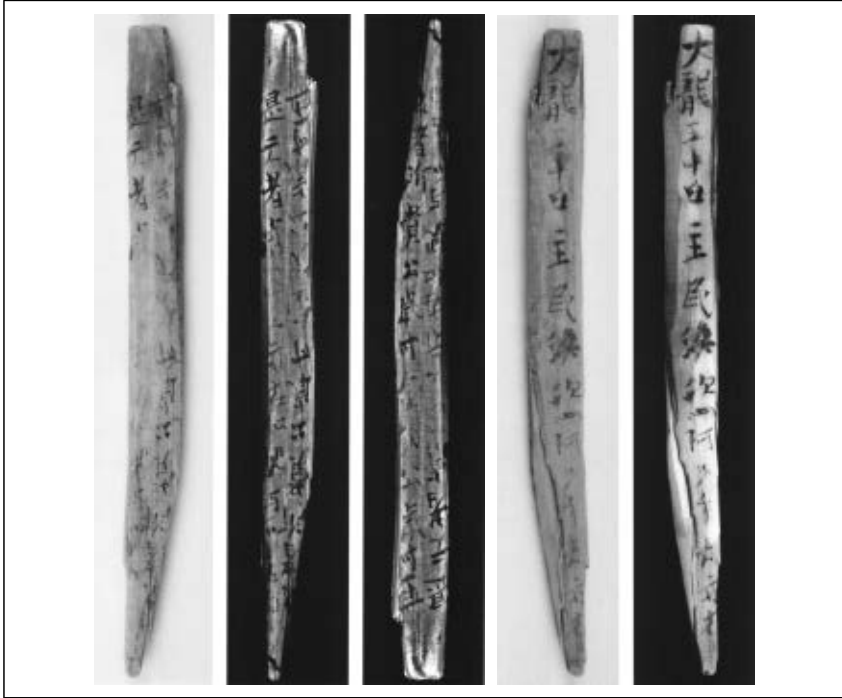
각된다. 토기류, 복숭아씨, 소뼈, 쥐뼈, 사슴뿔 등의 동반 유물로 보아 기왕의 우물 출토 목간에 나타난 것처럼 이 우물에서도 우물제사가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더 상세한 목간 판독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씨는 행서의 필의가 있는 해서로 쓰였고, 원필의 능숙한 필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목간의 너비가 좁기 때문에 차분한 절제미가 있는 가운데 과감함도 부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목간 2는 이등분된 채 발견되었다. 붙인 길이가 9cm, 너비 1.2cm이며, 상하단에 ' > < ' 모양의 홈을 만든 것으로 보아 꼬리표목간으로 추정된다. 육안으로는 목흔을 찾을 수 없는데, 만약 빈 목간이라면 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목간일 가능성도 있다.⁶¹⁾

다음으로 전인용사지 출토 목간을 살펴보자. 전인용사지 동회랑지 남쪽에 위치한 우물에서 출토된 목간은 오랜 기간 땅 속에 묻혀 있었지만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우측 하단의 일부만 떨어져 나가고 전체적으로 완형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4) 수종이 소나무인 이 목간의 형태는 도자刀子和 비슷하며, 횡단면도 도자의 인부刃部처럼 한쪽 면이 다소 날카롭게 치목되어 있다. 도자의 등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께 0.5-0.9cm, 도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0.1-0.5cm로 측면에서 보면 실제 칼처럼 상부는 두껍고 하부의 뾰족한 끝부분은 얇은 두께의 차이가 있다.

61) 월성해자목간에서 많이 보이는 봉형목간은 흘형목간보다 서사 공간이 많아 주로 문서 용으로 사용되었다. 이 경우 항상 사용 가능한 빈 목간이 대기 중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또 떡 번짐 방식을 위해서 생나무를 건조시키는데도 시일이 필요한데, 두꺼운 봉형이 얇은 흘형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동주, 2009. 『월성해자 출토 목간의 제작기법』. 『木簡과 文字』 4. 한국목간학회. 참조.



〈그림 14〉 경주 전인용사지목간, 통일신라, 15.7×1.4×0.9cm,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면은 1행이고 후면은 2행인데, 후면은 좌우로 뒤집지 않고 상하로 뒤집어 첫 행을 쓰고 다시 상하를 돌려서 둘째 행을 썼다. 한 면에 역방향과 정방향의 글씨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는 능산리사지목간에서 그 형태가 남성의 성기 모양을 하고 있어 발굴 초기부터 ‘남근형 목간’이라 불린 목간 295의 3면에 정방향과 역방향 글자가 같이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이다.⁶²⁾ 다만 능산리사지목간은 1행, 전인용사지목간은 2행인 것이 다르다.

이 목간은 우물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데, 일본에서도 도자형 목제품 또는 철제도자 등이 우물제사와 관련하여 우물 내부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⁶³⁾ 목서는 30세인 소귀공과 35세인 김[후]공 두 사람이 우물에서

62) 윤선태. 2007. 앞의 책. 121쪽.

용왕에게 제사지낸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판독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전면) 大龍王中白主民渙次心阿多乎去亦在

(후면 역방향) [名]者所貴公歲卅金[候]公歲卅五

(후면 정방향) 是二人者歲中⁶⁴)人亦在如□与□□右□

각 글자의 결구를 살펴보면 목간 좌측의 상·하단 결락부분은 원형이고 우측 하단만 서사 후 결락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大龍’과 ‘次心阿多乎去’의 좌측에는 손상된 획이 없으며, ‘亦在’의 우측 부분 획만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것으로 보면 목간의 우측은 수직으로 곧은 모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목간의 형태가 도자임을 감안할 때 손잡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단 좌측을 인위적으로 자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결과 칼의 손잡이, 몸통, 뾰족한 칼끝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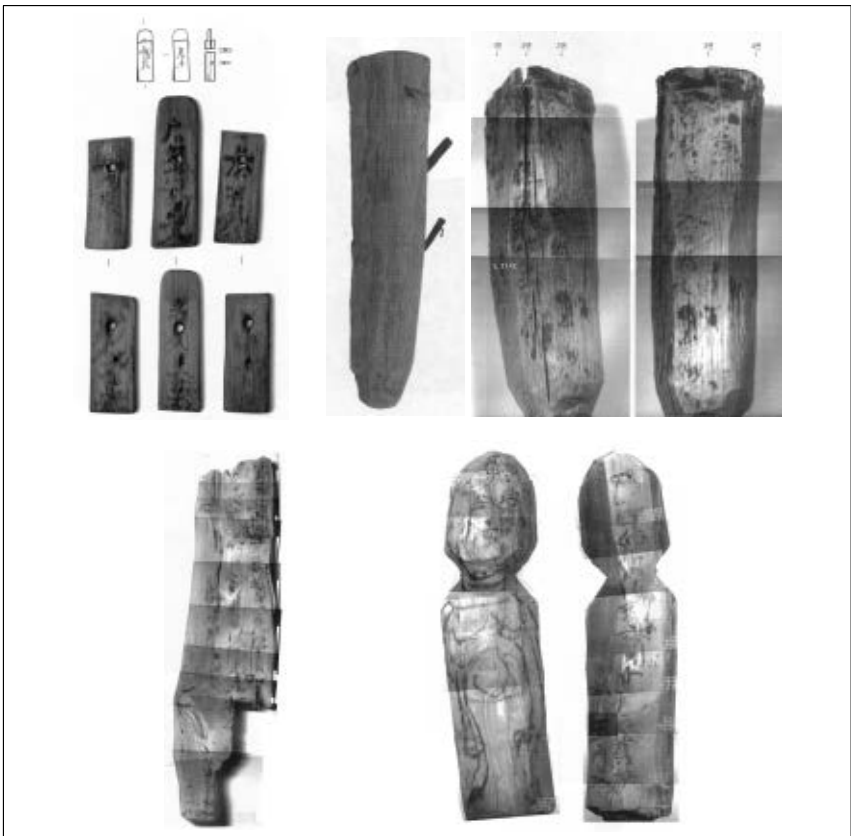
글씨는 행서의 필의가 있는 해서로 쓰였다. 자형은 상부에서는 장방형이 많고 하부에서는 정방형 또는 편방형이 많다. 글자의 크기와 굵기에 변화가 많아 상부에서는 크고 굵으며, 하부로 내려가면서 작고 가늘어지는데, 이는 인부에 해당되는 하부로 갈수록 서사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노봉이 많은 필법이 도자 형태 목간의 실제 날카로운 이미지와 일체를 이루는 것은 서자의 계획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창녕 화왕산성 출토 목간을 살펴보자. 화왕산성 연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간 일곱 점 가운데 네 점에 목서가 있다.(그림 15) 그 가운데 목제뚜껍으로 막혀 있는 단경호 내부에서 출토된 목간 1은 세 점이 한 조다. 세 점 중 중·하위 두 곳이 철제 못으로 고정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세 점 모두 가장자리 면과 모서리가 다듬

63) 北田裕行. 2000. 『古代都城における井戸祭祀』. 『考古學研究』 47. 고고학연구회. 61-62쪽.

64) 歲와 中 사이에 목흔은 없으나 목서가 한 자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재환. 2011. 『傳仁容寺址 출토 ‘龍王’ 목간과 우물연못에서의 제사의식』. 『木簡과 文字』 7. 한국목간학회. 140쪽.

어져 있으며, 너비와 두께가 유사하다. 따라서 이 세 점은 어떤 목적을 위해 가공된 것으로 보이며, 고정된 상태로 단경호 안에 들어갔고 나오지 못하도록 목재 뚜껑으로 막았다고 본다. 이런 유물 형태와 출토 양상으로 보아 어떤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세 점의 목간이 한 세트로 가공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 중 목간 후면 첫 글자가 ‘爲’로 판독되므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또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로 추정하고 결국 무엇을 기원하는 내용을 썼을 것으로 유추한다.



〈그림 15〉 창녕 화왕산성목간 1(좌상), 2(우상), 3(좌하), 4(우하), 통일신라, 5-6.4×1.9×0.4cm, 28.8cm, 31.1×6cm, 49.1×10.6cm, 경남문화재연구원

세 점 모두 양면에 목서가 있는데, 글자의 모양은 하고 있으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도교의 부록符籙이기 때문인데, 부록은 별자리나 문자를 도안화하여 만든 것으로 지금의 부적符籙에 해당된다.⁶⁵⁾

편병 속에서 견갑골로 추정되는 수골獸骨과 함께 출토된 목간 2는 길이 28.8cm의 봉상형태이며, 총 6면이다. 봉상의 상위와 중위 두 곳에 끝부분이 뾰족한 쇠칼 모양의 못이 비스듬히 박혀 있는데, 목간 1과 4에서 일반 못을 사용한 것과 차이가 있다.

목간의 형태는 남자의 성기와 유사하다. 제의에 이러한 형태를 사용한다면 예로는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남근형목간이 있으며, 일본에서도 양물모양의 목제품이 출토된 사례가 있다.⁶⁶⁾ 능산리사지 남근형목간은 사악한 기운이 왕경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길가에 내걸었다고 보는데, 화왕산성에서도 사악한 귀신을 퇴치하기 위해서 남근을 내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목간에 쇠칼을 꽂은 것은 남근을 자극하여 음기를 성하게 하려는 의도, 즉 우물의 물이 마르지 않기를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목서는 1, 2, 3, 6면에서 확인되는데, 2면에 ‘龍王’, 3면에 ‘下入’, 6면에 ‘二日’이 보인다. 이것으로 추측해 보면 이 목간은 어떤 의례에 사용된 것이며, 그 대상은 용왕이고 제의를 지낸 날짜는 2일인 것으로 생각된다. 2면 상부에 약한 홈을 만든 것은 끈으로 묶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끝부분을 깎은 것은 제의 때 꽂아 세워두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간에 세로로 틈이 생기고 목흔마저 지워져 판독은 어렵지만, 현 상태로 보아도 활달한 행서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삐침과 파책이 자유스럽고 필치에는 과감한 노련미가 있다.

목간 3은 그 형태가 화왕산성 출토 다른 목간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목

65) 부록의 풀이는 김재홍, 2009. 앞의 논문, 103-109쪽.

66) 平川 南, 2008. 『道祖神 신앙의 원류-고대 길의 제사와 양물형 목제품』. 『木簡과 文字』 2. 한국목간학회.

간 판상을 유지하고 있다. 글자도 다른 목간에 비해 많은 편이다. 지금까지의 판독으로는 1행에 ‘龍王’, 2행에 ‘井’자 등이 확인되는데, 우물제사를 지내면서 용왕에게 무엇인가를 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은 목흔으로 보면 서체는 해서로 보이며 서풍은 목간 2와 유사하다.

비교적 규모가 큰 목간 4는 위의 목간들과는 형상이 상당히 다르다. 통나무 상위 1/3 지점에 흠을 내어 사람의 목을 표현했고 윗부분은 동그랗게 손질하여 사람의 얼굴을 만들었다. 이어서 붓으로 사람의 신체를 구체적으로 그렸다. 머리 부분에는 얼굴 윤곽선을 그리고 눈썹, 눈, 코, 입을 표현했으며, 이빨을 상하 2열로 표현하여 무서운 인상을 준다. 몸에는 가슴, 팔다리, 성기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기는 원으로 그려 그 인형이 여성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남성 성기 모양의 목간 2는 양, 여성 성기를 그린 목간 4는 음을 표현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정수리의 목서 ‘眞族’과 신체 주요부분에 못이 박혀 있다는 것이다.

편평하게 다듬어진 후면에 2행의 목서가 있는데, 중앙에 1행을 쓰고 그 좌측 하부에 4자로 1행을 썼다. 목서의 판독은 다음과 같다.

(전면 정수리) 眞族

(후면) □古仰□□年六月廿九日眞族

龍王開祭

‘眞族’은 제사 주관자(또는 대상자)고, ‘龍王’은 제사 대상자며, ‘古仰’은 부록이다. 따라서 ‘진족이다. 예부터 우러러 보기를 □□년 6월29일 진족이(인) 용왕을 위해서 제의를 열다’로 해석된다. 목간 2, 3, 4에 각각 ‘龍王’이 목서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용은 물 즉 수신水神과 관련된 상징으로 보고 이 목간은 보편적으로 기우제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⁶⁷⁾

67) 김재홍. 2009. 앞의 논문. 112-114쪽.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진평왕 50년(628), 성덕왕 14년(715)과 15년(716) 그리고 헌덕왕 9년(817) 조에 있다.⁶⁸⁾ 그리고 진평왕 50년인 7세기 전반에 기우제에 용을 사용했다고 처음으로 나오며, 8세기 초와 9세기 초에 물이 있는 연못과 산과 강에서 기우제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⁶⁹⁾ 이처럼 가뭄이 들자 산천에 두루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 장소로 창녕의 화왕산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우제는 물이 있는 연못과 강에서 지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참고하면 창녕을 중심으로 한 행정영역에서는 황왕산 정상에 위치한 연지가 제사지로서 적합한 곳이었을 것이다.⁷⁰⁾

그러나 인형 형태의 목간 4에서 눈과 심장 등 중요부분에 못이 박힌 것을 근거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거나 치병治病, 기자祈子 등을 목적으로 연못의 용왕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⁷¹⁾ 또한 동반 유물로 볼 때 목간의 용도가 일련의 의식적인 제의가 이루어지고 연지 내에 투기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특히 소리를 내는 기능을 가진 철탁과 청동방울이 출토되었는데, 삼국시대 고분 출토물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아 제의식에 사용된 후 연지에 투기된 것이라 유추한다. 이런 점에서 기우제 의식 때 주술적 행위도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⁷²⁾ 이 때문에 이 목간의 용도를 주술용으로 보기도 한다.⁷³⁾

68) 『三國史記』新羅本紀 卷4 眞平王 50年條. “夏大旱, 移市, 畫龍祈雨.” 『三國史記』新羅本紀 卷8 聖德王 14年條. “六月大旱, 王召河西州龍鳴嶽居士理曉, 祈雨於林泉寺池上, 卽雨浹旬.” 『三國史記』新羅本紀 卷8 聖德王 15年條. “夏六月旱, 又召居士理曉祈禱, 則雨赦罪人.” 『三國史記』新羅本紀 卷10 憲德王 9年條. “夏五月不雨, 遍祈山川, 至秋七月乃雨.”

69) 『三國史記』에 가뭄기사가 무려 35번 나온다. 박성천·김시환. 2009. 앞의 논문. 217-219쪽.

70) 『三國史記』卷34 雜志3 地理1. “火王郡 本比自火郡(一云比斯伐) 眞興王十六年置州名下州 二十六年 州廢 景德王改名 今昌寧郡 嶺縣一 玄馳縣 本推良火縣(一云三良火) 景德王改名 今玄豐縣.”

71) 김창석. 2010. 앞의 논문.

72) 박성천·김시환. 2009. 앞의 논문.

또한 초두鑿斗도 목간과 더불어 출토되었는데,⁷⁴⁾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초두가 산성이나 대규모 건물지 등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생활유적에서 빈번히 출토되는 경향을 보인다.⁷⁵⁾ 이러한 초두는 술, 물, 음식, 약 등을 끓이거나 데우는데 사용되는 용기로서의 실용적 기능을 가지지만, 화왕산성 제의에서는 공양적 의미를 가진 의기儀器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목간 4의 후면은 네 목간의 목서 가운데 글자를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다. 행서의 필의가 있는 초서의 첫 행은 중앙에서 시작하다가 목간의 모양을 따라 점차 우측으로 기울어지다가 마지막 네 자 ‘九日眞族’은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九日眞族’과 비슷한 위치에 좌측에 ‘龍王開祭’가 쓰여 있는데, 글자의 크기에 변화가 많고 과감하면서 거침없는 필치는 앞면 신체 부위를 그린 필치와 유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六月’은 합문처럼 보이는데, ‘六’ 아래에 앉은 ‘月’자의 너비가 일반적인 결구보다 훨씬 더 넓은 것도 두 글자를 한 몸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⁷⁶⁾ 전체적으로 율동적이면서 과감한 서풍은 제사에서 동반유물인 철탁, 청동방울 등을 사용하면서 주술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또는 제의 끝에 춤의 축제가 있었다면 그 때 행해졌을 동적이면서 과격한 행위들을 연상시킨다.

73) 김창석, 2010. 앞의 논문; 이재환, 2013. 『한국 고대 ‘呪術木簡’의 연구 동향과 전망 -‘呪術木簡’을 찾아서-』, 『木簡과 文字』 10. 한국목간학회.

74) 4-5세기 경주 황오동고분군에서도 초두가 출토되었다. 국립청주박물관, 2000. 앞의 책, 95쪽; 국립경주박물관, 2002. 『文字로 본 新羅』, 예맥출판사, 14쪽.

75) 姜秉權, 2005. 『統一新羅時代 鑿斗 一考察』, 『錦江考古』, 충청문화재단연구원.

76) 합문에 관해서는 권인한, 2015. 『古代 東아시아의 合文에 대한 一考察』, 『木簡과 文字』 14. 한국목간학회, 참조.

4. 맺음말

지금까지 아홉 군데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의 목간을 용도별로 나누어 서체와 서풍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목간의 용도가 다양하다. 왕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통일기 신라 목간은 삼국기 신라목간에 비해 점차적으로 문서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꼬리표로서의 역할이 늘어난다. 삼국기 월성해자목간은 문서목간이 많아 원주형 또는 다면목간이 주를 이루고, 안압지목간은 동궁의 식생활을 보여주는 음식 꼬리표목간이 많아 양면목간이 주를 이룬다. 통일기의 문서목간으로는 안압지 출토 사면목간과 창고의 곡식 납입을 기록한 경주 황남동 출토 사면목간이 있다. 더하여 통일기에는 삼국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습서목간과 제의목간이 등장한다. 습서목간으로는 김해 봉황동과 인천 계양산성 출토 논어목간이 있고, 제의목간은 우물제사와 관련된 박물관부지, 박물관 남측부지, 전인용사지 우물 출토 목간이 있고, 가뭄 해소를 위한 기우제와 주술적 성격을 띤 것으로는 창녕 화왕산성 연지 출토 목간이 있다.

둘째, 용도에 따라 목간의 서체나 서풍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문서목간은 해서로, 꼬리표목간, 습서목간, 제의목간은 행서로 주로 쓰였다. 서풍에 있어서는 동궁의 음식 꼬리표가 주를 이루는 안압지목간의 행서는 고박하면서 자유자재하다. 안압지목간 가운데 습서목간은 인면을 그린 해학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김해 봉황동과 인천 계양산성의 습서목간의 행서는 서풍은 조금 다르지만 둘 다 편안하면서 자연스럽다. 안압지 출토 문서목간은 행서의 필의가 있는 해서로 쓰였고, 황남동 출토 문서목간은 북위풍의 해서로 쓰였는데 둘 다 정연하면서 무밀하여 힘찬 기운이 있다. 제의용인 경주박물관부지와 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전인용사지 우물 출토 목간

과 창녕 화왕산성 연지 출토 목간은 대부분 행서나 초행서로 쓰였으며, 과감하면서 곧센 필치가 돋보인다.

그리고 같은 용도라도 삼국기에 비해 서사수준이 높아졌다. 꼬리표목간과 문서목간은 삼국기보다 통일기 글씨가 더 능숙하다. 이는 통일기에 문서행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관리에 대한 서사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서사솜씨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본고에서 살펴본 용도에 따라 다른 다양한 서풍은 목간을 마주한 서자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럽게 당연한 표현이다. 필자는 고구려의 금석문, 통일신라의 금석문, 6-7세기 고신라의 목간에서 용도에 따라 거기에 어울리는 적절한 글씨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기왕의 연구에서 밝혔는데, 본고를 통해 7-10세기 통일신라 목간의 글씨도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대와 재료가 다르고, 서자와 심지어 서자의 신분이 달라도 글씨를 분위기에 맞는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 한국 고대 서자들의 보편적인 서예미학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목간은 가공 과정을 거치는 금석문과는 달리 나무 위에 바로 필사하기 때문에 비록 단편적이지만 일차적 사료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명서가가 쓴 비문과는 달리 필사자가 행정관리라는 점에서 당시 범인들의 서사수준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서예사적 의의가 크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한국 목간 글씨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姜秉權. 2005. 「統一新羅時代 鏹斗 一考察」. 『錦江考古』. 충청문화재연구원.

강유위. 2014. 『광예주쌍집』 상·하. 정세근·정현숙 옮김. 다운샘.

橋本繁(하시모토 시게루). 2006. 「古代朝鮮における '論語' 受容再論」. 韓國出土木簡の世界Ⅲ(早稲田大学 심포지움 발표문).

橋本繁. 2007. 「雁鳴池 木簡 判讀文의 再檢討」. 『新羅文物研究』 창간호.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傳仁容寺址 발굴조사 보고서 I』.

_____. 2013. 『傳仁容寺址 발굴조사 보고서 II』.

국립경주박물관. 2002. 『文字로 본 新羅』. 예맥출판사.

_____. 2011. 『우물에 빠진 통일신라 동물들』. 국립경주박물관.

_____. 2015.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나무 속 암호, 목간』. 예맥.

국립중앙박물관. 2011. 『문자, 그 이후』 한국고대문자전. 통천문화사.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8. 『咸安 城山山城』,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보고 제5집.

_____. 2004. 『한국의 고대목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_____. 2006. 『한국의 고대목간』 개정판.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국립청주박물관. 2000.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통천문화사.

권오영. 2008. 「성스러운 우물의 제사」.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 역사문화학회.

- 權仁瀚. 2013. 「고대한국 습서 목간의 사례와 의미」. 『木簡과 文字』 11. 한국목간학회.
- _____. 2015. 「古代 東아시아의 습문에 대한 一考察」. 『木簡과 文字』 14. 한국목간학회.
- _____. 2015. 「출토 문자자료로 본 신라의 유교경전 문화」. 『口訣研究』 35. 구결학회.
- 권인한·김경호·승률 책임편집. 2011.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권택장. 2010. 「경주 傳仁容寺址 유적 발굴조사와 木簡 출토」. 『木簡과 文字』 6. 한국목간학회.
- 김재홍. 2009.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과 祭儀」. 『木簡과 文字』 4. 한국목간학회.
- 김창석. 2001. 「황남동376유적 출토 목간의 내용과 용도」. 『新羅文化』 1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_____. 2010.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목간의 내용과 용도」. 『木簡과 文字』 5. 한국목간학회.
- 김창억. 2004. 「우물에 대한 제의와 그 의미」. 『영남문화재연구』 17. 영남문화재연구원.
- 뤼징(呂靜)·이하얀·장러(張樂). 2011. 「한국 경주 안압지 출토 ‘책사(策事)’ 목간에 관한 시론」.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박성천·김시환. 2009. 「창녕 화왕산성 蓮池 출토 木簡」. 『木簡과 文字』 4. 한국목간학회.
- 박성현. 2008. 「신라 城址 출토 문자 자료의 현황과 분류」. 『木簡과 文字』 2. 한국목간학회.
- 釜山大學校博物館. 2007. 『金海 鳳凰洞 低濕地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研究叢書 第33輯.

- 北田裕行. 2000. 「古代都城における井戸祭祀」. 『考古學研究』 47. 고고학 연구회.
- 鮮文大學校考古研究所. 2005. 『仁川桂陽山城東門址內 集水井出土 木簡保存處理結果報告』. 선문대학교고고학연구소.
- 윤선대. 1999.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의 용도」.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 _____.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 _____. 2005.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12.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 荷札의 再檢討」. 『史林』 41. 수선사학회.
- 이경섭. 2005. 「성산산성 출토 하찰목간의 제작지와 기능」. 『韓國古代史研究』 37. 한국고대사학회.
- 이기동. 1979. 「안압지에서 출토된 신라 목간에 대하여」. 『경북사학』 1. 경북사학회.
- 李基東. 1980.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일조각.
- 이동주. 2009. 「월성해자 출토 목간의 제작기법」. 『木簡과 文字』 4. 한국목간학회.
- 이영호. 2014.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 이재환. 2011. 「傳仁容寺址 출토 ‘龍王’ 목간과 우물연못에서의 제사의식」. 『木簡과 文字』 7. 한국목간학회.
- _____. 2013. 「한국 고대 ‘呪術木簡’의 연구 동향과 전망—‘呪術木簡’을 찾아서—」. 『木簡과 文字』 10. 한국목간학회.
-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0. 『옛 글씨의 아름다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 장이(蔣彝). 2009. 『서에 미학과 기법』. 정현숙 옮김. 교우사.
- 전덕재. 2009. 「함안 출토 신라 하찰목간의 형태와 제작지의 검토」. 『木簡과 文字』 3. 한국목간학회.

- 정현숙. 2007. 「北魏 平城시기의 금석문과 그 연원」. 『書藝學研究』 10. 한국서예학회.
- _____. 2008. 「新羅와 北魏·隋·唐의 書藝 比較 研究」. 『書藝學研究』 13. 한국서예학회.
- _____. 2010. 「삼국시대의 서풍」. 『옛 글씨의 아름다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 _____. 2013a. 「통일신라 서예의 다양성과 서풍의 특징」. 『書藝學研究』 22. 한국서예학회.
- _____. 2013b. 「康有爲 『廣藝舟雙楫』의 「傳衛」·「寶南」·「備魏」篇 譯註」. 『木簡과 文字』 11. 한국목간학회.
- _____. 2014. 「창녕지역 신라금석문의 서풍」. 『書藝學研究』 24. 한국서예학회.
- _____. 2015. 「신라 서예의 다양성과 일관성 고찰」. 『書藝學研究』 27. 한국서예학회.
- 주보돈. 2002.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 _____. 2015. 「신라사의 흐름」.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국립경주박물관.
- 최순조. 2013.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 출토 신명문자료-東宮衙銘 호 및 辛番(?)東宮洗宅銘 청동접시-」. 『木簡과 文字』 10. 한국목간학회.
- 平川 南(히라카와 미나미). 2008. 「道祖神 신앙의 원류-고대 길의 제사와 양물형 목제품」. 『木簡과 文字』 2. 한국목간학회.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홍기승. 2013. 「경주 월성해자·안압지 출토 목간의 연구 동향」. 『木簡과 文字』 10. 한국목간학회.

(2015. 11. 6 접수 : 2015. 11. 30 수정 : 2015. 12. 1 채택)

정현숙

열화당책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원광대 미술학석사(서예사 전공), 펜실베니아대(UPenn) 철학박사(동양미술사 전공)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구 분야는 한국서예사이며, 삼국과 통일신라 서예논문 20여 편이 있다. 저서로 『월전 장우성 시서화 연구』(공저), 『김충현 현판 글씨, 서예가 건축을 만나다』 등이, 역서로 『서예 미학과 기법』, 『미불과 중국 서예의 고전』, 『광예주쌍집』(공역)이 있다.

E-mail : hyun.s.jung@gmail.com

Calligraphic Style of the Wooden Tablets of the United Silla by Use

Jung, Hyun-sook (Chief Curator, Youlhwadang Book Museum)

Key words : Tag wooden tablet, Character-practice wooden tablet,
Document wooden tablet, Rite wooden tablet, Incantation
wooden tablet

Of all the ancient script materials, wooden tablet is one of the most excellent materials to explore the hand writings by administrative officials. This paper is to search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lligraphic style of wooden tablets of the United Silla by use. Tag wooden tablets and document wooden tablets became popular in the Old Silla period, but document wooden tablets decreased and tag wooden tablets increased in the United Silla period. By the United Silla period, character-practice wooden tablets and rite wooden tablets were also added, and their sorts and calligraphic styles became diverse.

The calligraphic style of tag wooden tablets is antique and unrestricted, that of character-practice wooden tablets natural and humorous, that of document wooden tablets in good order, and that of rite and incantation wooden tablets bold and vigorous. Comparing the writings of the Old Silla to those of the United Silla in same use, the latter became more skillful. Despite the difference in skill, their calligraphic esthetics in harmony with use are the same.